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느 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피상적으로는 Catholic 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변질된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섬의 입구인 선착장 바로 앞에 크게 세워놓은 베드로상(큰 물고기를 손에 잡고 있는 베드로 상)과 Divino Nino(기괴하게 생긴 아기 예수)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보다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는 베드로와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가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VB 를 진행하려는 시간에 마을의 Catholic 지도자가 교리 공부를 시킨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소집하는 일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저녁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극적으로 전기가 들어와서 원색적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장애물과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야 스릴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금메달보다 더 크고 귀하신 분입니다.

### **3. 선교는 축복입니다. - 그래도 참여해야 맞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선교에 동참한 형제 자매들의 주옥같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연약함, 무가치함, 무지함을 깨닫는 반면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멋진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지를 깨닫고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섬마을의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선교는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복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약품도 나눕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복음을 듣지 않고 회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떠난 지금도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단기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형제, 자매가 달라졌어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고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교는 참으로 하늘의 복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습니다. 본 사람만이 말 할 수 있습니다. 맛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참여 한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